

전북도 유망중소기업 모집

18일까지 기업 소재지 시·군 기업지원부서 방문·우편 접수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최고 5억 원, 이차보전 3% 우대 지원

전북도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유망중소기업을 모집한다.
도는 '2021년 전북도 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유망중소기업 20개사 내외를 선정,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상향 및 이차보전 우대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인증기간 5년 동안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를 기업당 최고 5억 원, 이차보전 3%로 지원받는다.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및 인증현판도 수여받는다.
또, 단체박람회 참가 등 각종 전북도 기업지원사업 참여시 가산점이 부여

된다.
신청자격은 제조업 및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며, 공고일 기준 전북도에서 3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기업이다.
또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며,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8월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다.
신청서류는 기업 소재지 시·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23일까지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와 외부전문가 현장심사를 거쳐, 10월 중 전북도 중소기업

지원기관협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기업을 예정이다.
특히, 객관적인 서류심사를 위해 기업 건실도, 역량, 성장잠재력 등을 정량화해 평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및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힘든 시기이지만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3D프린팅 산업 활성화·융복합 기술 지원

전북도, 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도민 3D프린팅 기술 활용 교육 등 실시

전북도가 3D프린팅 기술지원으로 도내 지역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도는 3D프린팅 융복합 기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19억 원을 투자해, 기업에는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도민에게는 3D프린팅 기술 활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제품 제작 지원은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2D·3D 설계, 3D프린팅 출력, 후가공·도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지원사업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지원사업을 받은 도내 45개 사의 경우, 매출액이 2019년 813억3,500만 원에서 지난해 856억8,700만 원으로 5.4% 상승했으며, 고용인력은 178명(2019년)에서 246명(2020년)으로 38%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 재직자 등 도민이면 전북테크노파크의 3D프린팅 전문가로부터 3D프린터 활용을 위한 이론 및 실습을 통해 기술,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교육도 11월까지 연중 운영한다.
아울러, 3D프린팅 설계기술에 대한 공학적 설계, CAD데이터 생성 방법 등 전주기적 제조기술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융복합 산업 활성화 3D프린팅 기술 활용 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 재직자 등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교육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이찬준 도 탄소바이오산업과장은 "3D프린팅 기술이 다양한 산업군에 융·복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도내 3D프린팅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3D프린팅 산업 활성화와 꾸준한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입원 아동 돌봄 '금쪽 아이 케어' 출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전북여성새로일터센터, 아이돌봄간병사양성교육 수료 후 창업 공동체 결성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윤애 센터장, 이하 센터)는 2021년 아이돌봄간병사 양성 직업교육훈련 수료와 함께, 창업 공동체인 '금쪽 아이 케어'를 결성·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금쪽 아이 케어' 활동의 출발점으로 전북대학교병원, 대자병원, 다솔아동병원 등 아동병원과 협력하기로 했다.
'간병플랫폼' 도우미와도 협업해 입원아동 보호자들이 모바일을 통해 돌봄 신청하는 돌봄 인터넷 계정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금쪽 아이 케어는 간병과 돌봄을 혼합해 병원 입원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간병 외 연령별 아동의 놀이지도 등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센터는 앞서,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140시간 동안 아이 돌봄 간병사 양성교육을 진행했으며, 2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교육생들은 교육 수료와 함께 창업의 첫 준비단계인 공동체 결성을 위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았다.
특히, 이번 직업교육은 참여자 1:1 개별 면담과 심층 상담을 통해 보육교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유관 자격증 및 경력을 소유한 경력단절여성들을 면접을 통해 교육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21년 아이돌봄간병사 양성 직업교육훈련 수료와 함께, 창업 공동체인 '금쪽 아이 케어'를 결성·출범했다.

생으로 우선 선발했다.
금쪽아이케어 사업단 김현옥 대표는 "아이돌봄간병사양성교육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기회이다"며 "평소 관심 있던 아이 돌봄에 소질이 더해져 훈련 시간 내내 매우 즐겁고 유익했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이윤애 센터장은 "금쪽 아이 케어 사업단 인력풀이 감히 전문가 수준이라고 자부한다"며 "아동 돌봄사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문 멘토 연계, 심화 및 보수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김부겸 총리 “이번주 금요일에 거리두기 단계 결정”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추이를 하루 이틀 더 면밀히 지켜보고, 이번 금요일(6일) 중대본에서,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한 달간 전국적으로 강도 높은 방역조치들을 시행해 왔다”며 “방역의 실효성 측면에서 분야별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도 이번엔 함께 살펴봐야 하겠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현장의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완방안을 적극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어제 1차 접종자 수가 2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백신접종에 탄력이 붙고 있다”며 “백신 공급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8월 한 달에만, 이제껏 공급된 백신을 초과하는 2860만 회분의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집단면역 이후의 상황에도 미리 대비하겠다”며 “내년도 백신 확보를 위한 재원을 이번 추경에서 확보했고, 제약사와의 계약 협상도 진행 중”



김부겸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접종이 코로나 감염 예방은 물론, 중증으로의 악화나 사망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접종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코로나19의 기세는

여전히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아직 휴가철이 남아있고 피서지에서 되돌아 오시는 분들도 많아, 확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감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방역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뉴시스

미주 한인회 협의회 회장단, 전북 방문

우범기 정무부지사 만나 상호 협력방안 논의

미주 한인회 협의회 회장단이 전라도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전북도청을 방문했다.
전북도는 김수철 미국 한인회 협의회장, 박영미 부회장 등 회장단이 우범기 정무부지사를 만나 전북도와 미

주지역 한인회와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4일 밝혔다.
미주 한인회 협의회는 미국 전역에 50개 단체로 구성된 조직으로, 도는 이번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미주지역 한인사회에 우수한 지역 특산품 및

문화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도는 재외동포와 호남향우회 및 도민회, 교려인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호남인의 날, 전통문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미주지역 한인회와 함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전북도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 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김양옥 교수)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사회복지사
- 전주매일 부사장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함 >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과리더쉽,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원,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은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